

군산·새만금·익산·완주과학 산업단지 미래 모빌리티 글로벌 생산 거점 육성

정부 산단 대개조 대상지역 선정

2024년까지 4945억원 투입

인프라 개선...1만명 일자리 창출

군산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북지역 4개 산업단지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육성된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24일 전북도를 포함해 전국 5개의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지역을 발표했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2019년 11월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라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범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역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지난해 1차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선정에 이어 올해 전북을 포함한 5개 지자체가 추가 선정됐다. 전북도가 신청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군산·익산·완주·새만금의 주요 산업단지를 미래형 상용모빌리티산업의 글로벌 거점 도약이 목표다.

군산국가산단은 상용 모빌리티 생산 거점이 되고, 익산 제2일반산단은 뿌리·부품소재 공급기지



전북도는 지역 4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단 대개조 사업을 진행,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한다. <전북도 제공>

역할을 한다. 완주과학산단은 수소(전기) 동력부품 공급기지로, 새만금국가산단은 미래 상용 모빌리티 실증기지로 특화된다.

전북도는 국내 중대형 상용차 생산의 94%를 차지하고 현대차, 타타대우, 명신과 같은 앵커 기업이 소재해 대개조 사업을 통해 미래형 모빌리티 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기술 혁신, 산업 고도화, 일터 혁신, 인력 양성, 환경·에너지 관리, 공간 혁신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국비 3159억원 등 4945억원을 들여 산단 입주기업 110곳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160건의 기술혁신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20년이 넘는 산업단지가 대개조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을 이끄는 곳으로 변신한다”며 “고용창출 1만명, 매출액 1조6000억원, 청년고용 8% 증대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익산 관광명소 순회

시티투어버스 내일부터 운행

익산시는 버스를 이용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시티투어버스’〈사진〉을 27일부터 운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티투어버스는 익산역~미륵사지~왕궁리유적~보석박물관을 순회하는 순환형과 익산역~나바위 성지~교도소세트장~보석박물관 등을 운행하는 테마형 등 2개 코스로 운영된다.

순환형 시티투어버스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7회 운행한다.

테마형은 다음 달 1일부터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행하며 3일 전까지 예약해야 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탑승 인원을 제한하는 등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며 운행할 방침”이라며 “시티투어버스로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익산을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3일 목포 서해어업관리단에서 부안군 어업인연합회와 경남부안군 해동발산추협회 간 ‘어업인협약’을 체결했다. <서해어업관리단 제공>

전북 부안해역 연안자망-통발어업 분쟁 타결

부안군·경남부안 ‘어업인 협약’

전북 부안해역에서 지속되던 연안자망어업과 근해통발어업 간 분쟁이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타결됐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3일 목포 서해어업관리단에서 부안군 어업인연합회와 경남부안군해동발산추협회 간 ‘어업인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측은 부안군 연안에서 조업구역에 대한 경쟁조업과 잦은 어구손상 등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다.

협약은 부안군 연안에서 근해통발어선의 조업 금지구역을 설정해 조업구역 중첩으로 인한 경쟁

조업 및 어구손상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준법조업을 유도하고 어업인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어업분쟁 당사자 간 소통을 통한 자율적인 조업 규정을 정해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북 부안연안자망과 경남부안군해동발 간 어업분쟁 조정은 지난 2018년 2월 신청돼 수차례 현지 조정활동과 어업인 간담회가 진행된 끝에 성과를 거뒀다.

서해어업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근거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26건을 조정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트로트 신동’ 방서희 양, 정읍시 홍보대사 됐다

운동면 방앗간집 외동딸

트로트 신동 방서희 양이 정읍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정읍시는 지난 24일 시청실에서 방서희 양과 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열고 방 양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방 양은 정읍시 운동면 ‘운동정결방앗간’ 집 외동딸로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로 온 동네를 울리고 웃기며 유명세를 떨쳐왔다.

정읍시는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며 대중적으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방서희 양’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지역 홍보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18년 ‘전국노래자랑 정읍시’ 편에서 MC 송해 선생과 듀엣곡으로 ‘아버지와 딸’을 불러 관객들의 눈시울을 붉히며 인기상을 받기도 했다.

또 KBS ‘노래가 좋다’에서 우승하고, 각종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다. 최근에는 MBN ‘보이스 트롯’에서 트로트 신동으로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활동하고 있다.

방 양은 앞으로 2년간 정읍시 홍보대사로 활동



유진섭(왼쪽) 정읍시장과 트로트 신동 방서희 양이 지난 24일 홍보대사 위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하며 지역의 풍성한 역사와 먹거리 등 다양한 매력을 전파할 예정이다.

방 양은 “정읍시 홍보대사가 되어 너무 기쁘다”면서 “고향 정읍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이진희 교수 초청 ‘램지어 역사왜곡 논문’ 반박

원광대 동북아인문사회학부 콜로키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을 반박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온라인 세미나가 열린다.

25일 원광대학교에 따르면 한중관계연구원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는 26일 제19차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번 콜로키움은 이진희(사진) 미국 이스턴일리노이주립대 사학과 교수가 초청돼 ‘세계사 속의 근대 한국사-램지어 사태의 교훈’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 교수는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해 역사를 왜곡한 논문에 대해 논문 출간 예정이었던 케임브리지대에 항의문을 보내 학문 정직 윤리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논문뿐만 아니라 일본 간토대지진의 조선인 학살과 재일교포 차별에 대한 램지어의 논문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



했다. 이 교수는 하버드대 일본학연구원 연구원이며 램지어 논문의 문제점을 공론화한 학자 가운데 한 명이다.

이 교수는 이번 콜로키움에서 램지어가 어떻게 역사를 왜곡했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확실하게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램지어가 2019년 발표한 ‘자경단: 일본 경찰, 조선인 학살과 사립 보안업체’라는 논문에서도 간토대지진 당시 자행된 조선인 학살 정당성 주장에 대해 연구를 통한 반박이 기대된다.

이번 콜로키움은 줌(Zoom)으로 진행되며, 원광대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에 사전 등록 신청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고창 문수산, 산림휴양·치유 명소 탈바꿈

200억 들여 편백숲 재창조 사업

고창 문수산이 오는 2022년 산림휴양과 치유의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산림청은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사업’으로 200억원을 투입해 ‘문수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문수산 일원에 치유센터 2개소와 숲속 놀이터, 숲체험장, 치유정원, 치유의 길(무장애데크), 숲문화마당 등 산림치유시설이 갖추고 주차장과 옥외승강장, 스카이워크 등이 들어선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말 ‘문수산 편백숲 공

간재창조사업’을 발주했고, 고창군은 치유공간 시설 완공에 앞서 주차장 발주를 마친 상태다.

고창군은 산림치유공간 대상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옥외승강장(40m)과 스카이워크(75m)에 대한 조성계획을 세워 예산을 확보하는 중이다.

문수산은 생장이 우수한 편백나무 집단 조림지로 경관과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고 숲 여행하기 좋은 산림청의 ‘국유림 명품숲’ 5곳에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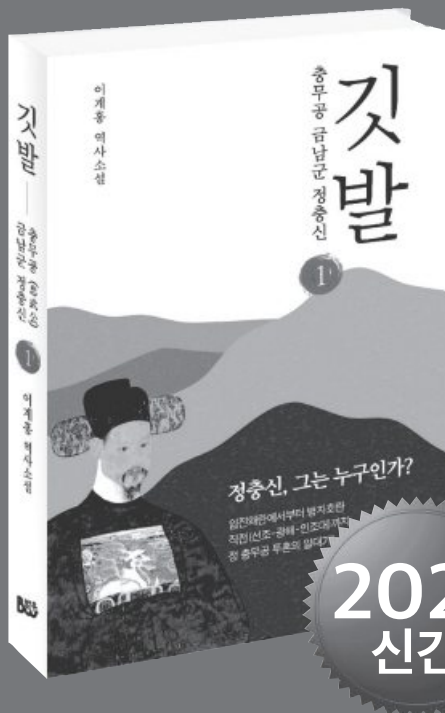
고창군 관계자는 “최고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정온천 지구와 연계한 건강과 치유 등 힐링자원의 집적화로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①~⑤

바다에는 李충무공, 육지에는 鄭충무공이 있었다!



충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은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틱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충무공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바다 이야기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

(바다와 나)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예제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현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에서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가!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왜 일본 정권은 침략주의 과거사를 미화美化하는가에 역사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국적으로 모는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일성 지음 | 신국판 | 332쪽 | 값 15,000원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제5쇄 발매중



한 출판인의 자화상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은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희영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정유재란 7주년을 맞아 펴낸 한중일 공동연구서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7년전쟁의 종전 7주년이 되는 2018년 11월의 노랑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x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